



2018년 9월 16일(제893호) 연중 제24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달인이 됩시다!”

하루에 세 시간씩 10년을 반복하면 누구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달인이 되는 것이죠. 제가 간혹 보는 TV 프로그램에 ‘생활의 달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일반인들은 흉내 내기도 어려운 일들이 오랜 시간 꾸준히 한길만을 고집했던 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 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눈을 가리기도 하고, 원래 사용하던 장비를 바꾸는 등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해냅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랜 시간 끊임없이 해온 그들은 그 분야의 달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달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달인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반.드.시.’라는 단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 절실하고 온전히 그렇게 되어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과 배척,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서 하느님께서서는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셨고,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제자들의 으뜸인 천하의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그 뜻을

가로막는다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지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루에 세 시간씩 십 년을 반복하면 누구나 그 분야의 전문가, 곧 달인이 되듯이 우리가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십자가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놓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내 삶의 자리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달인이 됩시다!



이재경(시도요원) 신부  
인진해군(해군인병사)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50,5-9ㄴ
- 회 목 송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제 2 독 시 야고 2,14-18
- 복음 본보 송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복 음 마르 8,27-35
- 영 성 제 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김원중 스테파노



**성인명:** 김원중 스테파노 (Stephen)

**신분:** 순교자

**활동연도:** ?-1866년

충청도 진천의 발래기(현, 충북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에 살던 김원중 스테파노는 본디부터 성품이 순량하고 온후하였으며, 그의 열심과 신덕은 교우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의 이웃에는 사촌인 김선화 베드로가 살고 있었다.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일어나자, 진천 관아에서는 이미 발래기 신자들에 대해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으므로, 전갈을 보내와 “다시는 천주교를 봉행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천주교 서적을 관아에 갖다 바치고 직접 관장 앞에서 다짐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전갈을 받은 발래기 신자들은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대부분 관청으로 서적을 갖다 바치고, 관장 앞에 가서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때 김 스테파노만은 “내가 천주교를 신봉하는데 어찌 배교 행위를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서적도 갖다 바치지 않고, 관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외교인들은 물론, 발래기의 신자들까지도 그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까 두려워 김 스테파노를 원망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신앙을 위해 모든 원망을 감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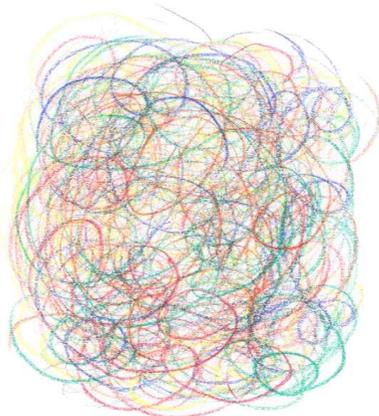
1866년 11월 10일(음력 10월 4일), 관아에서는 다시 전갈을 보내와 “발래기 사람들은 모두 관아에 출두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전해 들은 김 스테파노는 교우들에게 “이제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두 관아로 갈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달게 받을 정도로 신덕이 깊은 사람만 관아로 가자.”고 말하였다. 이튿날 진천 관아에서 포졸들이 왔을 때, 발래기 신자들 중에서 김 스테파노를 비롯하여 10명만이 자진하여 체포되었다. 그들 일행이 관아로 들어가자 관장은 “일전에 갖다 바친 책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다. 김 스테파노는 책을 갖다 바친 적이 없으면서도 “저의 책이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관아에서는 곧바로 그를 가두어 버렸고, 이때 신성순 회장과 2명의 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겁에 질려 배교를 다짐하였다.

진천 관아에서는 25일 동안 이들을 가두었다가, 모두 12월 6일(음력 10월 30일)에 감사가 주재하던 공주로 압송하였다. 이때 김 스테파노는 공주로 압송되기에 앞서 아우에게 편지를 보내, “나는 주님을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 너도 아무쪼록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수계하여 훗날 천당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아내에게도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요.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죽으나 사나 주님의 명에 순종하다가 죽은 뒤에 천당에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나는 공덕이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천당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는 다시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김 스테파노 일행을 인도받은 공주 관아에서는 이들을 모두 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끝까지 신앙을 증언하였으며, 12월 16일(음력 11월 10일) 함께 교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는 사실이다. 김 스테파노의 아우가 공주로 와서 이들 네 명의 시신을 찾아 장사를 지내 주었다.

###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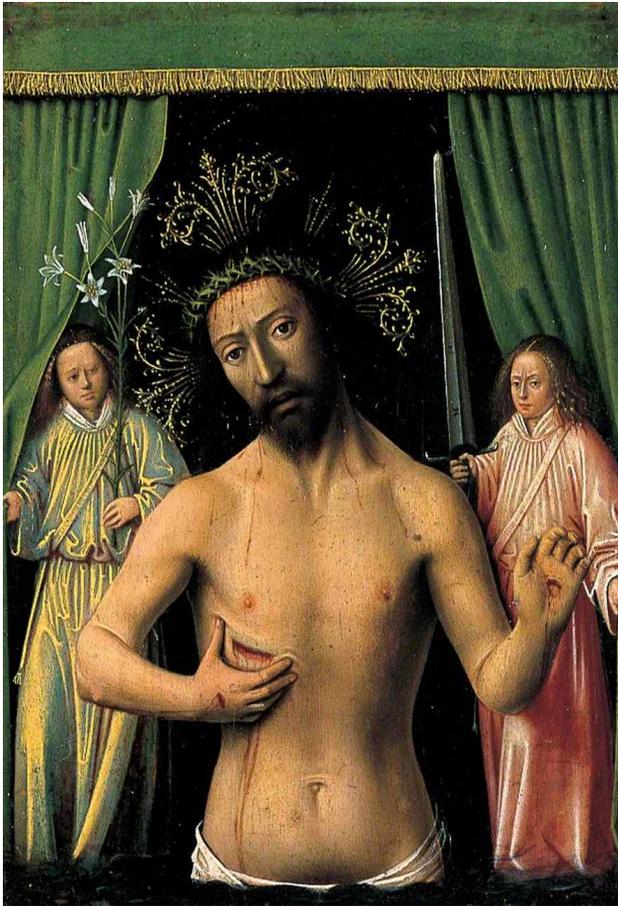


### 이게 나요

- 나요.
- 이게 나요.
- 색색이
- 휘몰아
- 요동치는
- 이게 바로
- 나요.

상화이야기

수난의 구세주



피트루스 크리스투스, 1450년

패널 위 유화, 11.2x8.5cm

비밍엄 국립미술관, 영국

이 그림의 작은 크기로 볼 때 개인적 묵상의 용도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수님 뒤의 초록색 커튼을 들어 올려 우리에게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있는 두 천사는 한 명은 자비를 의미하는 백합을, 한 명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가차 없이 처단할 것임을 상기시키는 칼을 들고 있다.

예수님은 가시관에서 흘러내린 피와 오상,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상징적으로) 섞여 그림의 아랫부분을 푸르스름하게 만들었고, 이는 마치 이 그림을 잡고 묵상하고 있는 이의 손에 예수님의 피가 묻을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여지를 남겨 주셨고, 이에 따라 예수님 자신은 희생제물이자 왕관을 쓴 구원자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희생자이자 동시에 전능한 구원자로 표현한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왕관에 정교한 보석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4주일: 공군본부 나땅님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9월 16일(주일) 11:00
- 국장회의  
    때·곳: 9월 18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군 복음회, 반침묵의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